

(Magnetic attachment 를 이용한 denture의 임상증례)

염성원*, 정순호, 김영훈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 치과 보철과

자성의 힘을 이용하여 removable partial denture를 abutment에, 또는 overdenture를 잔근치에 연결해 그 유지와 안정을 얻어내는 유지장치를 magnetic attachment라고 한다.

가철성 의치의 유지장치로써 자석의 힘을 이용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나 실제 구강내 환경에서 적용하기 힘들어 임상적으로 널리 시행되지는 않았다. 지속적인 연구를 거듭해 1990년대 초 적용이 쉽고 간단한 magnetic attachment가 시판되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Magnetic attachment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술식이 매우 간단하다는 점이다. 지대치에는, keeper가 주조에 의해 고정된 단순형태의 coping이 장착되고, 의치에 합착되는 자석 구조체는 완성된 의치에 상온 중합 레진이나 접착성 레진 cement로 구강 내에서 직접 합착되기 때문에 복잡한 기공 작업이 불필요하다. 또한 자력에 의한 유지력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변하지 않고 착탈시 attachment의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다. 환자에 있어서는 의치의 착탈이 간편하고 구강 청소도 간단하며 심미성이 뛰어나다. 그밖에 반복 사용이 가능하며 적용범위가 넓고 지대치에 무리한 측방력이 가해지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본 원에서는 Magfit EX 600을 이용한 overdenture와 removable partial denture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 임상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